

여행·전시 연계 젊은 콘텐츠 개발...5·18 문턱 낮춰야 공감



<3> 청년들 눈으로 바라보는 5·18

엄숙함, 무거움, 진지함. 20대, 30대 젊은층이 41년을 맞는 5·18에 대해 떠올리는 이미지다. 무겁고 딱딱한 역사책같은 부담스러운 주제로는 5·18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다.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꾸려진 19명의 오월홍보단, 이른바 '오월이들'이 자유로우면서 새로운 형태의 5·18 콘텐츠에 주목하는 이유다.

오월홍보단은 블로거 15명, 유튜브 4명 등 19명으로 20~30대 젊은층이 대부분이다. 41주년 5·18 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주도해 꾸려졌다. 이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무겁게만 받아들여지는 5·18이라는 주제를 자유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재해석해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1년 전 5·18 영상과 미안마의 민주화운동 영상의 유사함을 유튜브로 알리는가 하면, 5·18 사적지를 여행지로 꾸며 온라인 포스트에 올리고 5·18과 인연이 있는 주먹밥 식당을 소개하는 등 콘텐츠에 다양한 5·18의 시각을 담아내 오래 기억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낯선 내용을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5·18을 알고 있으면 전파하게 된다는 게 이들 생각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5·18 콘텐츠화'가 전국화·세계화로 이어지는 필수적 조건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오월홍보단 심지훈(31)씨는 5·18 행사와 전시회 등을 촬영, 기보하고 싶은 광주지역 여행 콘텐츠로 소개하고 있다. 심씨는 "유튜브와 온라인 상에서 5·18이 지금의 미안마 민주화 운동처럼 민주화를 갈

오월홍보단 '오월이들' 19명 활동 무겁고 딱딱한 5·18 알리기 탈피 미안마 통해 5월 정신 알리고 젊은 시선으로 영상 등 제작 블로그·유튜브로 접근성 높이고 온라인상 왜곡·편향 막기 나서

구한 민중의 희생이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40년 전 발생한 5·18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씨는 "5·18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 영화 '택시운전사'와 '화려한 휴가'로 많이 알려진 것 같지만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5·18 자체가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 무거운 주제로 자리잡고 있다는 게 심씨 생각이다.

심씨가 5월 홍보를 위해 관광 콘텐츠에 신경을 쓰는 이유도 젊은 세대들이 5·18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관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씨처럼 유튜브로 5·18을 짧게 해석해 알리는 오월이들은 강한나, 손보란, 한아름씨 등 4명이다.

다른 '오월이' 김유빈(여·22)씨는 5·18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게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5·18을 여행 콘텐츠로 삼아 알리고 있다. 최근에는 누리꾼들에게 광주를 찾으면 들려야 할 여행지로 5·18 사적지를 둘러본 영상을 소개하는 포스트를 올려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창현(40)씨는 온라인 상에서 끊이지 않는 5·18에 대한 왜곡과 편향을 멈추게 하는 일을 젊은 세대의 책무라고 꼽았다.

이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광주로 전학을 왔는데 아버지가 군인이라고 하니 주변 시선이 좋지 않



5·18을 온라인을 통해 전국화, 세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오월홍보단 오월이들.

<5·18민주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제공>

았"면서 "5·18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5·18을 다른 영화와 콘텐츠를 접하면서 부정적이었던 5·18에 대한 실상을 알기 시작했고 블로그를 통해 5·18 역사왜곡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최근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 강론했던 경북 경주의 위덕대 교수의 발언을 조목조목 따지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씨는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젊은세대들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5·18 왜곡과 편향을 막는 데 더 힘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5·18행사위원회 관계자는 "오월홍보단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보면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5·18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며 "이들이 만들어낸 여행코스 등을 둘러보는 것이 이제는 5·18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한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마스크 착용 요구에 아이스크림 던졌다가... 폭행에 감염병예방법·주정차 위반까지

마스크도 없이 마트에 갔다가 제지하는 직원에게 아이스크림을 던진 50대 여성이 3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광주서부경찰은 12일 마스크 없이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러다 제지하는 직원에게 아이스크림을 던진 혐의(폭행)로 A(여·50)씨를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B 마트에서 직원을 향해 아이스크림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스크림을 사러 마트에 들렀다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직원과 시비,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 앞 CCTV에 찍힌 영상에는 A씨가 옷을 끌어올려 코와 입 부분을 막고 마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마트 영상에는 A씨가 마트 입구에서 직원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을 골라 계산하려다 마스크 착용을 거듭 요구하는 직원에게 아이스크림을 던지는 영상

도 찍혔다. 방역수칙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안 쓴 경우 당사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를 특정한 뒤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청에 통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할 예정이다. A씨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하는 장면까지 영상에 찍히면서 불법 주·정차 여부를 조사 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구역에 주정차 감시 카메라가 있고 A씨의 차량이 15분 이상 주정차 된 장면이 담겼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1분 이상 해당 구역에 주정차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검토 뒤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18 위대한 유산전'

12일 광주 북구청사 담장에 80년 5월 당시를 기록한 사진전시회 '5·18 위대한 유산전'이 진행되고 있다. 북구청 청년간부회가 5·18 기념재단에 의뢰해 진행되는 전시는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빛 받으려 온 지인 살해 유기 40대 구속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구속됐다.

광주북부경찰은 12일 채무 갈등을 빚던 지인을 불러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전북 남원의 한 야산에서 4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어머니에게 2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갈등을 빚었고, 말다툼 도중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

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불러낸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야산까지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닷새째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아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B씨 행세를 하며 '바람을 쐬려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의 행방을 묻는 가족들과 태연하게 통화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

<h3>상가매매 (상무지구)</h3> <p>감정가(시세) 9억원 →매매가 4억9천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상업지구 메가박스 영화관 앞 ☑ 사무실, 바, 유흥룸, 모든 업종 가능 ☑ 즉시 업무 가능, 시비 없음 <p>010-6670-9800</p>	<h3>신축원룸(매매)</h3> <p>월 수익 750만원 연 수익 9천만원 →매매가 13억원 (용 6억5천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실 없음, 임차인 항시 대기 (관리 회사에서 해드림) ☑ 당진시 석문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부근 대산향 10분 소요 <p>010-4667-9820</p>
---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